

## 김정범 세라믹 아티스트: 시간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법

고동연 (미술사가)

공예와 순수예술의 분류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20세기 초 유럽사회가 과거의 봉건적인 삶의 형태를 버리고 나아가는데 현대미술도 그러한 흐름에 합류해야만 했다. 따라서 공예로부터 순수예술을 분류하고 우위에 놓으려는 시도는 단순히 미술사나 미술이론에서의 의미 이상을 가진다. 그것은 미술에서 과거 전통으로의 결별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려는 현대적인 시간 개념을 구현하려는 한 방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집착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 예술가들이 과거의 전통을 자신의 작업에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숙련도와 미술사에 대한 지식, 사랑, 열정이 필요하다. 이에 김정범의 세라믹 도기, 타블로, 설치 작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가가 서구 회화사에서 나오는 명화의 이미지들과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청백자의 기술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도 시사적인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테마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예 vs. 회화, 3차원 vs. 2차원, 도기 vs. 설치의 다양한 분류들을 혼용하는 김정범의 작업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가가 현대적인 시간 개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세라믹'이라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공예의 수법을 고수하면서도 표현적인 회화를 구현하거나 전구의 불들로 깊이를 알 수 없는 터널의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고 시계판 후면의 부품을 재구성해서 배치하는 과정은 과거, 현재, 미래의 단선적인 시간관으로 벗어나기 위한 작가의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청백자의 현대적인 전용: 세라믹 도기

김정범은 세라믹 재료로 작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따른다. 하지만 전통을 고수하는 작가의 태도는 기술적인 과정에만 있지 않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푸른색을 예로 들어보자.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인 지오토(Giotto)의 벽화에서 유래한 천상의 색상은 보노이로 하여금 가장 경건하고 차분한 정서적 반응을 자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17세기부터 유럽 귀족층으로 확대된 중국 청백자 또한 흰색과 코발트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치 상인들은 동인도 회사를 차리고 중국의 청백자를 유럽 각지에 유행시키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여기서 푸른색은 고귀하고 이국적인 중국 도자기의 한 전형을 유럽인들에게 인식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접시, 회화, 타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등장한다. 100호 캔버스 위에 타일을 올린 <해골>(2018)에서 중앙에 붙여진 타일 뒤로 거대한 십자가 대열의 붓자국이 나 있다. 또한 도자기의 여백에 코발트블루와 고귀하고 값비싼 색상의 대명사인 금색의 즉흥적인 붓질이 등장한다. 여기서 붓질은 작가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붓질의 굵기와 방향성은 전통적으로 습득되어져온 기술보다는 작가의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보다 즉흥적이고 불규칙할수록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푸른색을 사용해서 그려 넣은 도자기의 모티브들 중에서 심상치 않은 것들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총이나 각종 작은 도구, 기계와 같은 '잡동사니'들은 영락없이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사용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김정범의 작업은 멀리서 볼 때는 전통 도기나 유럽의 모티브가 간간히 들어가 있는 중국 청백자를 연상시키지만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 명화에 등장하는 거창한 귀족 복장을 한 인물들과 현대인들의 물건들이 숨은 그림처럼 혼용되어 있다. 때문에 그의 세라믹은 얼핏 여느 공예품처럼 보이면서도 작가의 표현적이고 창조적인 요소들이 퍼즐처럼 숨기고 있다.

#### 순수의 시대에서 심연을 만나다: <Innocent>

이질적인 요인들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최근 제작된 <Innocent>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두상을 사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외신에서 흔히 접하는 장면들이 결합되면서 재난 속 어린이들이나 난민의 참혹상이 연상된다. 실제로 타일 위에 그려진 장면에서 어린 아이가 밑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고 뒤쪽에는 거대한 폭발을 암시하는 버섯구름이 위치해 있다. 얼굴에서 이마가 차지하는 비중과 짧은 코, 둥그런 턱선은 전형적인 어린이의 두상이다. 그러나 중후한 김정범의 재료들과 만나면서 어린이의 두상은 더욱 더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의 센터 피스에 해당하는 두상은 녹이 슨 굵은 와이어로 만들어져 있다. 물론 여기서도 어김없이 오래된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가 함께 사용된다. 어린이의 두상은 시간적인 추이를 암시하는 녹슨 철사들로 암시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전체 두상의 하단부에는 장난감 바퀴와 같이 생긴 금속으로 된 바퀴가 달려 있다. 아울러 두상 내부 중앙에는 반사거울이 위치해 있다. 거울 위로 하단에 위치한 전구의 불빛이 반사되면서 거울 표면을 위에서 보게 되면 깊이의 환영이 만들어진다. 전구 빛의 열들이 거울 위로, 아니 아래로 뻗으면서 SF 영화에 나오는 통로가 생겨난다. 또한 유리 거울 위에는 화석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놓여 있다.

따라서 '순수하다'라는 타이틀이 부여된 어린이의 두상 안쪽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펼쳐진다. 생경하게 달려 있는 전구의 열이 하단의 바퀴와 함께 '타임머신'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깊이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유리거울과 위에 놓인 화석 또한 묘한 조합이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시점과 그 이후 폐허의 이미지가 교차된다고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모든 시간적인 혼동이 '순수해 보이는' 어린이의 두상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삶의 출발점에 위치한 어린이는 이미 시간을 돌고 돌아 어른 그 이후의 존재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 지점에서

결국 작가에게 과거와 현재는 하나다. 과거는 끝없이 현재 속에서 발견되고 마찬가지로 현재는 과거의 언어를 끝없이 빌려온다. 시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장면들이나 물건의 이미지가 '여기, 우리'를 상징한다면 이를 작가는 중국 청백자의 양식 속에서 구현한다. 전통 장인들처럼 작업의 세부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해낸다. 과거의 전통에 예속시킨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간간히 들어가는 붓자국은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가의 몸부림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시계 내부의 부품을 해체해서 시계의 겉면이 아닌, 겉면 너머의 모습을 구현한 <Blue Ocean>은 가장 단순하지만 직접적으로 시간을 다룬다. 시간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재를 해체함으로써 시계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흐르는 시간에 종속된 인간은 적어도 시계를 해체함으로써 그 시간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서 보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직선상에 놓인 시간적인 추이를 부정하는 것이며 암암리에 시간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구속으로부터도 벗어나려는 것이다. 즉 특정한 과거의 행동이 현재, 미래로 이어진다는 단선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도예/예술가로서 40년 가까운 작업을 해온 작가가 개인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소재나 양식을 결합할 뿐 아니라 시간이라는 테마 자체를 다룬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작가의 여정을 특정한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행보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내면에 위치한 두려움을 극복해가지 못한다. 유리거울에 지속적으로 반사되는 빛처럼 희망과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시, 공간을 극복해서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기재를 갖게 된 현대인들은 더 더욱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얽매인다. 우리가 김정범의 <Innocent> 속 어두운 심연 속 전구의 빛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가?